

# 책으로 열어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미래

## 참여연대 · 경실련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단체의 출판활동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행정권력 · 사법권력 · 시장권력 · 언론권력 등 모든 권력은 스스로 절대화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허버마스가 통찰했듯 비대한 권력은 생활세계(시민사회)를 '식민화'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반성없는 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정체성을 되돌려받기 위해 연대 · 저항하지 않으면 안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싹트기 시작한 환경 · 여성 · 반핵 · 인권 · 소비자운동 등 '신사회운동'의 존재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초한 '신사회운동'은 정치권력의 변혁을 꿈꾼 운동과는 달리 개인의 자율성, 삶의 질, 다원화된 생활양식을 지향한다. 따라서 정예화된 전위조직보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꽃핀다. 다시 말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셈이다. 시민운동 단체들은 참여연대 · 경실련 ·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 규모의 단체부터 인권운동사랑방 · 여성민우회 등 부분별 전문단체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시민적 연대와 참여확대를 위해 정간물부터 단행본까지 출판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 종합적 권력감시운동

지난 94년 인권변호사와 비평가사회과학자 그룹이 추축이 돼 출범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외)는 종합적 권력감시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부패방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등으로 국가 · 자본 · 언론의 강고한 '삼각동맹체제'에 대한 저항전선을 구축해왔다. 특히 제일은행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삼성전자에 대한 부당증여행위 제소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을 뿌리내렸다.

참여연대는 시사종합지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하기관인 (사)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주종환)에서는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창작과비평사) ·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푸른숲) · 《한국제법개혁론》(나남출판) 등을 통해 이론개발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공익재단법안백서》(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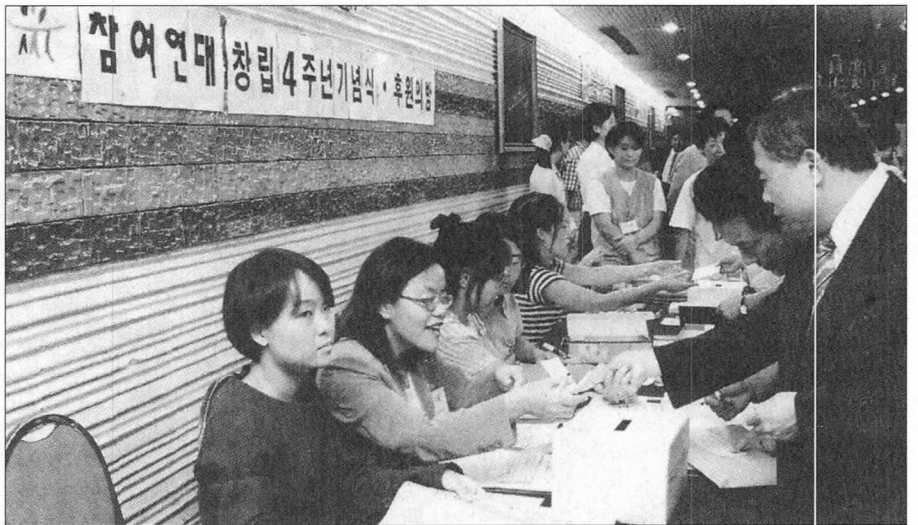
《부정부패의 사회학》(나남출판) 등을 펴내기도 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모토로 89년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실명제, 부동산투기 근절, 재벌개혁, 한국은행 독립 등의 경제개혁 과제를 의제로 설정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의 전범을 세웠다. 우리농업살리기 운동, 공명선거캠페인,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등으로 운동의 영토확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실련은 담론의 민주화와 대안 있는 시민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월간 《경실련》과 함께 《한국기업의 평가》(경제정의연구소) · 《땅 · 집 : 한국의 토지주택정책,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 《시민의 도시》(한울) ·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움직이는책) 등을 펴냈다. 또한 비봉출판사에서 《경실련 총서》로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 《열린사회 열린정보》 · 《금융실명제》 등 3권을 기획출간하기도 했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환경문제가 전지구적 의제로 떠오름에 따라 환경운동은 국내 시민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1993년 전국 8개 환경운동 단체가 연대해 출범한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진현 외)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개조, 독점 · 집중에서 분배 · 분산으로의 환경개선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전국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반대운동, 골프장건설 반대운동, 생태계 · 삼림 보존운동 등을 펼쳐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주의적 담론확산을 위해 '시민환경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의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단행본 약6천여권, 정기간행물 100여종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95년부터 공공 DB인 '환경공해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환경오염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월간 《환경운동》 · 《함께 사는 길》과 함께 《녹색혁명이 페트라 켈리》(모니카 스페어, 나남출판), 《그린피스》(마이클 브라운 · 존 메이, 자유인) 등을 번역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정식 출판등



책을 통한 작은 운동으로 시민연대를 펴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록해 《국가에서 공동체로》(안승준) · 《동강엽서》 · 《환경사전》 · 《환경의 이해》 등을 펴내기도 했다.

'대화주의'를 주장하면서 1965년 출발한 '크리스찬 아카데미'(대표 강영훈)는 연구 · 교육운동에 주력해왔다. 94년에 설립한 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성숙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작은 책》 시리즈(한울)를 펴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시민사회의 이해》부터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까지 8권을 출간했다. 또한 '대화출판사'를 통해 《정보화 시대, 교육의 선택》 · 《주민자치, 삶의 정치》 등을 선보였다.

### '인권'이라는 화두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여전히 시민운동의 화두 중의 하나다. 지난 93년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내세우며 출발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대항언론'으로서 인권팩트신문 《인권하루소식》(주5회 발행)을 발간해오고 있다. 또한 국내에 유일한 인권정보자료실을 운영하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전도하고 있다. 인권전문출판사인 '사람생각'을 통해 《인권총서》로 《한국 감옥의 현실》 · 《인권교육 길잡이》를 발간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깨려는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87년 21개 회원단체로 출발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지은희)은 《지방

의회 여성위원의 삶과 도전》(한울) 등을 펴냈다. 월간 《함께 가는 여성》을 발간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대표 이경숙),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 등을 펴내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도 여성의 제몫찾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밖에 생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생활협동조합 한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앙회', 국제연대와 통신자유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인간존중의 교육을 위한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참교육시민모임' 등도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대안적 운동들이다.

이들 시민운동은 직접 · 참여민주주의,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협동적 관계와 공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결국 얼마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시민의 동의와 설득 그리고 참여를 일궈낼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참여확대와 문제의식의 공유를 위해 정교한 이론개발과 출판물을 통한 홍보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아직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운동 단체들은 21세기를 위한 '희망의 투자'로서 출판을 통한 연대의 전략을 고민 · 실천하고 있다. —박천홍 기자